

‘K-황실문화’ 복원한 황수로 궁중채화장

안다미로



김정길
편집위원

그의 외조부는 고종 황제 때 궁내부 주서의 관직을 지냈다고 한다. 할아버지는 간혹 황제가 하사한 잡화를 집으로 가져오곤 했는데 어린 시절 상당 기간 외가에 머물면서 실물 잡화를 접했다. 집안 어른들이 직접 꽃장식을 하던 모습도 자주 보았다. 어린 시절의 기억으로 “우리나라에도 꽃장식 전통이 있었다”는 유학생의 강변은 일본인들은 멸시에 가까운 냉소를 보였고, 역사적 기록이나 실제 작품 등 증명을 요구했다고 한다. 당시에는 증거가 없었다고 한다.

귀국 후 황 궁중채화장은 동아대 대학원(사학과)에서 늦깎이 석·박사 학위를 받는 등 본격적인 꽃 전통 공부에 매진했다. 학계 거두인 정중환 교수의 지도로 전통 꽃 문화를 되찾겠다는 일념으로 연구에 뛰어들었으나 의계 서화는 물론 문헌에 남은 화장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한다. 지도교수는 “이건 놀랍도록 새로운 분야이다. 연구를 다듬어 논문으로 내 알려야 한다”며 격려했다. 1990년 박사학위를 받았다. 일제 강점기 조선왕조 문화 말살 만행으로 명맥이 끊긴, 역사 속에서 잊혀진 비단 꽃들이 ‘궁중채화’라는 이름으로 다시 꽃을 피웠다. 황수로의 궁중채화는 2005년 부산 APEC, 2007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방한 등 행사장의 국민 만찬장을 장식하며 궁중채화를 세계에 알렸다.

궁중채화는 비단, 종이, 모시, 삼베, 가죽 등의 소재로 만들어진다. 황 궁중채화장은 소재의 자연 염색에 가장 공을 들인다. 장식 이상의 의미를 지닌 궁중채화는 임금에 있는 곳 좌우에는 언제나 홍도화와 백도화 화준이 놓였다. 홍·백 두 화준은 국가의 상징이다. 생화가 아닌 채화 사용은 계절적 요인이 있었지만 유교를 숭상한 조선 왕실에서 꽃을 꺾기보다는 채화를 선호한 것 같다고 한다. 황 궁중채화장은 전수받지 못했지만 결국 채화들을 하나하나 조심히 뜯어 보면서 비단에 배접을 해 꽃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한다. 조선 후기 실학자인 이덕무의 ‘윤화매십전’에 나타난 기법도 참조해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황 궁중채화장은 궁중채화 중요문화재 지정 노력을 하던 중 덕수궁 궁중채화 전시 때 유홍준 문화재청장의 ‘지정 신청 요청’을 계기로 10년 만에 2013년 국가 중요무형문화재에 등재됐다. 양산시 매곡동 한국궁중꽃박물관은 전통기에 전수관이자 궁중채화 1호 보유자로서 그동안 애써 만든 채화를 보존하기 위해 만들었다. 황 채화장은 전통 기법만 고수하는 대신 궁중채화의 맥을 잇기 위해 실용적인 대안 찾기를 바라고 있다. 문화재청에 ‘채화장’을 ‘화장’으로 명칭 변경을 건의한 것 역시 같은 생각이다. 황 채화장의 노력으로 K-궁중문화가 부활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124호인 황수로 궁중채화장(88)이 은관 문화훈장을 수훈했다. 지난 달 27일 서울 모두예술극장에서 열린 ‘2023 문화예술발전 유공 시상식’에서 수훈했다. 황 궁중채화장은 공적은 60여 년간 조선왕조실록에서 기록만으로 내려오던 조선왕조 의례의 궁중채화를 연구·복원한 공로다.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꽃 전문박물관인 ‘한국궁중꽃박물관’을 건립한 공로도 인정받았다. ‘한국궁중꽃박물관’은 황 궁중채화장이 궁중채화를 복원·전승·계승하기 위해 사비 150억 원 등 모두 200억 원을 들여 건립했다. 여기에는 APEC 정상회의 조선왕조 궁중채화 특별전을 비롯해 UN본부 한국전통공예특별전 등 수많은 국내외 전시와 ‘한국 꽃 예술 문화사’를 비롯해 ‘아름다운 한국채화’, ‘아름다운 궁중채화·황수로 한국채화 이야기’, ‘꽃, 웃음·연화미·화장 황수로의 삶과 꽃 이야기’ 등을 출간하는 등 한국 궁중 예술의 전승 발전과 한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했다.

궁중채화장 황수로 선생은 인간문화재 이전에 기업가이다. 동부산 컨트리클럽 회장으로 골프 스포츠를 통한 국민의 건강한 삶 영위에 일익을 맡고 있다. 기업 가문의 자손이기도 한 황수로 회장은 국내 굴지의 모직회사인 태창기업 일백 황태성 회장의 딸로 성장했다. 한국궁중채화연구원 화장과 동국대학교 석좌교수를 맡고 있다. 황수로 궁중채화장은 본래 이화여대에서 가정학 분야를 전공한 한마디로 현모양처로 성장했다. 그런 황 궁중채화장은 궁중채화의 길로 들어서 궁중채화를 국가중요무형문화재 반열에 올렸다. 황 궁중채화장이 채화의 길에 들어선 이유는 송고하기까지 하다. 1960년대 남편과 함께한 일본 유학 때 황 회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말을 들었다고 한다. 일본 사람들은 어떤 자리에서건 기회만 생기면 ‘꽃꽂이는 다른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일본의 전통문화’라고 홍보하고 대학 문화·교양 수업에서도 꽃꽂이를 유일무이한 자기들의 전통이라고 자랑하는 것을 수긍할 수 없었다고 한다. 황 궁중채화장의 거부반응은 단순한 반일 감정만이 아닌 집안 내력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퇴직재무설계 Q&A



강정순
BNK경남은행 W&M고객부
은퇴금융팀 과장

Q. 김해시에 사는 1959년 5월생 정모(64)씨는 4년 전 30년 넘게 근무하던 직장에서 정년 퇴직 후 지게차운전기능사자격 취득을 해 새로운 인생 2막을 살아내고 있다. 평생 배우면서 일할 수 있는 장수보너스가 도전정신이 강한 정 씨에게는 활력과 기회가 되고 있다. 65세 이후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우대 지원한다는 언론보도와 정 씨가 내년에는 ‘기초연금’ 수령나이가 되므로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상담을 신청했다.

A.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지난 달 6일부터 오는 15까지 입법예고하고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고용보험법 변경으로 실업급여제도가 변경된다. 이번에 달라지는 고용보험법에서는 65세 이전에 취업해서 65세 이후에 퇴직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조기에 재취업을 했을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우대해서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65세 이상 달라지는 실업급여와 기초연금제도

달라지는 실업급여(안) = 직장인들은 대부분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만 정년때까지 한 직장에서 계속 일한 사람들은 정년퇴직 시에 한 번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서 이마저도 못 받고 은퇴하는 사람들도 많다.

고용보험법 제10조에 의해 65세가 넘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65세 이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다가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된 경우에는 65세가 넘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을 가입하여 유지하는지가 중요하다. 현재 실업급여 수급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의 1/2이 되기 전에 재취업하고 12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면 남은 실업급여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는 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180일 이상 계속 고용이 확실한 직업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해서 미리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한다.

달라지는 기초연금(안) = 기초연금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소득 하위 70%인 65세 이상 노인들이 수급대상이다. 2023년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2000원이고 기초연금 수급액은 기준연금액 30만 원을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조정되는데 올해는 32만 3180원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기초연금 적정성평가위원회’에서 10차례에 걸쳐 논의한 끝에 최종적으로 정부에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 내용을 보면 현재 65세 노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바꾸고 금액은 40만 원으로 인상하되 소득수준별로 차등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방안과 함께 장기적으로 대상자를 기준중위소득 50%까지 줄이고 액수는 월 72만 8000원까지 상당히 많이 높인다는 내용이다. 기초연금은 물가상승률이 반영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약 33만 4000원을 받게 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기초연금 재정이 2080년에는 312조 원으로 20배 가까이 증가하는데 GDP의 약 3.5% 수준이다.

기초연금은 정부에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좋은 제도로 그동안 계속 확대되었다. 기초연금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민연금처럼 미래 세대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개혁이 필요한 것 같다.

글터·생각터 경남매일은 독자가 참여하는 지역 언론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기고나 투고, 시나 사진 등을 지면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보내주시는 글이나 사진 등은 편집회의를 통해 게재여부를 결정합니다. ※외부필진의 원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



김제홍
경남도 해양수산국장

일본인들이 육지에도 정착하게 된 배경에는 어업에 편리한 입지조건, 아선과 운반선이 정비하기에 안전한 어항이 있었기 때문이지만, 특이하게도 섬이 제법 규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1887년 이전까지 민간인이 살지 않았기에 조선인들이 터전을 잡고 있던 다른 곳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착하기 쉬웠던 측면이 더 큰 요인으로 보인다.

육지도 인근에는 통영과 부산 같은 거대 수산시장이 있을 뿐 아니라 거제도도를 거쳐 일본으로 이어지는 운송망이 형성되어 있어 어획물의 판매와 유통이 수월했다. 육지도에서 잡은 수산물들은 마산항을 통해 만주와 중국의 대련까지 수출되었다. 이와 같은 지리적 이점으로 육지도는 어업근거지형 아촌으로 성장했다. 과거 1897년 기준으로 육지도에는 일본어선

근대 어업의 발상지 육지도 ②

81척과 일본 어민 237명이 어업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 조선인 인구는 15호에 불과했다. 1900년 이후 육지도의 정황은 일본의 문헌에 단편적으로 언급되어 있는데, 구즈 슈스케(久生修吉)의 한해통어지침(韓海通漁指針, 1903년)에 따르면 당시 6개 마을이 있었다고 한다. 자부포(자부랑개)에는 4호가 있었고 통어조합 연합회의 우편함이 설치되어 있었고 잠수기업자의 창고도 많았다고 한다.

‘한국수산지(1910년 발간)’에 의하면 육지도에는 읍동과 좌부랑포(座富良浦) 2개의 마을이 있는데 그 주변에는 논과 밭이 많았다고 하며, 일본인 도미우라 가쿠다로(徳尾龍太郎)와 1호가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일본인들은 조선인들이 사용하던 종래의 분기망을 개량하여 안치키(アンチキ)라는 어법으로 멸치를 잡았다고 한다. 어떤 어법(漁法)인지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일제강점기 오다끼(夜叉)어법이 성행했다는 기록으로 보아 밤에 불을 밝히고 집어물 하면서 잡는 어법으로 보인다.

육지도는 멸치잡이 어업과 잠수기 어업의 근거지였다. 성어기에는 운반이 수심 적씩 정박했다고 한다. 기업적 성격을 띤 어업은 대부

분 일본인들이 운영하였고, 자본이 부족했던 조선인과 일부 일본인들은 멸치잡이 어구와 어선을 빌려서 어획한 다음 총어획고의 40%를 자본주에게 제공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어쨌든 어업에 종사하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술을 습득해서 해방 후 어업기술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다.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어업에서 제일 중요한 각종 어구재료가 기계적으로 생산되기 시작했다. 과거에는 낚시도구, 그물, 밧줄 등을 모두 수작업으로 만들었는데 일본인들에 의하여 낚시도구 제조기, 편망기, 로프제조기 등이 도입되어 대량생산이 가능해졌다.

일본인 이주가 증가하면서 여객 및 화물 수송을 위해 육지와 통영을 오가는 정기항로가 개통되었다. 과거 1913년 육지도와 통영 사이를 일주일 간격으로 운항하는 기선(大輪船)을 시작으로, 1920년에는 통영-육지-남해 미조를 왕래하는 카이켄마루(海元丸)가, 1920년에는 통영-육지를 오가는 여객선 지도리마루(千島丸)가 등장했다.

일본 어민들이 정착하면서 상인들과 운반선업자들이 뒤따라 들어와 자리를 잡기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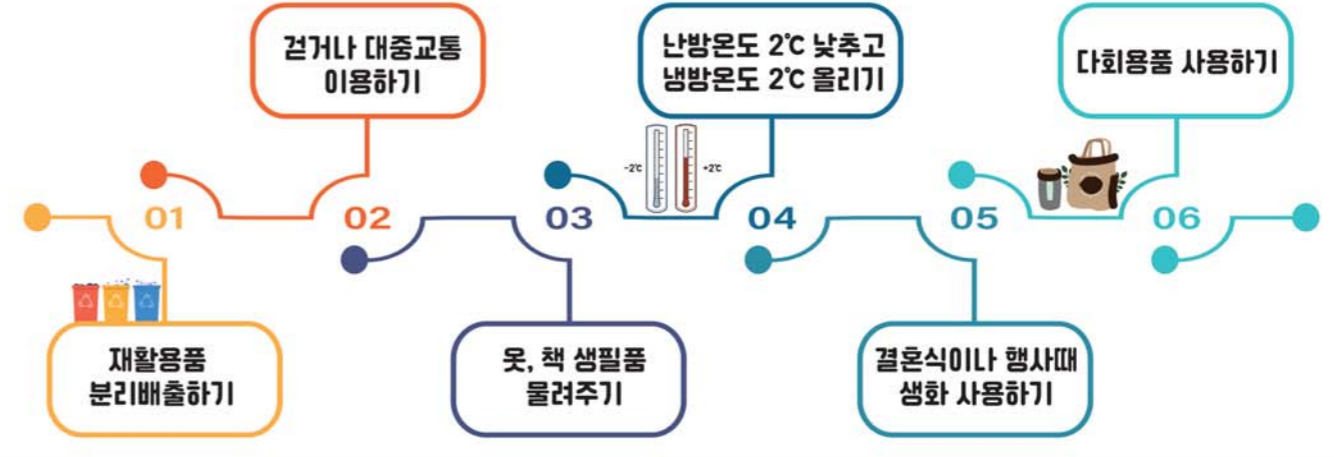
소중한 지구를 지키는 탄소중립 캠페인

‘(주)쿨스’와 함께 합니다!!

탄소배출 0%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에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억제, 흡수해 탄소 발생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해요!!

탄소중립을 위한 작은발걸음 함께 실천해봐요



주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232로 16 (송정동)

전화번호 : 051-941-2339

